

경북도, 구미 '미식관광' 육성 박차... 3년간 30억 투입

'K-푸드로드 문화관광 사업' 선정 대표 미식자원 '9미' 등 고평가 '구슬랭' 인증제로 맛집 신뢰 강화



구미푸드페스티벌. /구미시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자 경북도가 이를 계기로 미식관광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북(구미)을 비롯해 강원(강릉), 충남(공주), 전북(남원), 경남(거제) 등 5곳이 선정됐다.

'K-푸드로드' 사업은 단순한 먹거리 골목을 넘어 지역의 K-푸드 문화를 결합한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해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된다.

선정지역에는 3년간 30억원이 투입된다.

구미시는 대표 미식자원인 '9미'와 K-푸드 3대장(라면·치킨·김밥)의 원조성, 연간 75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3대 미식

축제(라면·푸드·아시아)를 기반으로 청년 문화와 창업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 송정맛집을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는 K-푸드로는 ▲게릴라 팝업 페스티벌, 버스킹 및 문화예술 보부상 프로그램 등 상설 문화예술축제 ▲쿠칭 클래스 연계 가스트로 투어 등 상설 문화관광 체

험프로그램 ▲특화거리 조성 및 통합 브랜드 마케팅 ▲청년창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구미시는 미슐랭 가이드를 본뜬 '구슬랭(Gu-chelin)'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민과 미식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미의 9미를 찾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대표 맛집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9미는 '9미 라면 페어링' 특화 메뉴로 개발해 상설 판매하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구미시는 일회성 축제를 넘어, 365일 미식과 청년 문화가 공존하는 K-푸드로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구미 K-푸드로드를 도내 K-미식 관광의 대표 선도 사례로 육성하고,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권역별 글로벌 K-푸드 미식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관광객 선호도와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음식이며, 그 자체가 곧 여행의 동기이자 목적이다. 미식의 보고(寶庫) 경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음식"이라며 "미식 관광을 도정 핵심 과제로 집중 육성해 K-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교육청 교육디지털원패스 도입

부산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구축한 통합 인증 체계를 부산교육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도입한 것으로, 나이스(NEIS)에 등록된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계정(ID)으로 여러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립부경대-국립해양조사원

해양 기후변화 기술연구 협력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이 기후 변화 대응과 해양 재난 예방, 첨단 해양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배상훈 국립부경대 총장,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경대 대학본부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설·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기후 변화·해양 재난 대응을 위한 학술·기술 교류, 첨단 해양 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 해양 산업 관련 산학 정보 교류 및 학술 대회 개최 등에 협력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국립부경대

제70회 원양승선실습 출항식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26일 부산 용호만 매패부두에서 제70회 원양승선실습 출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수해양산업교육과, 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생 78명과 승무원 34명 등 112명은 실습선 백경호에 올라 32일간의 항해에 나섰다.

학생들은 7월 27일까지 동해·남해·서해와 중국·일본·대만 해역에서 항해술, 어로 조업, 전자통신 운용, 선박기관 운용, 자동제어시스템 운용 등 STCW 국제협약 기준의 항해사·기관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상국립대

몽골서 해외봉사·문화교류

경상국립대학교가 지난 26일 GNU국제관에서 '2026년 하계 GNU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11박 1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교육·노력 봉사 문화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봉사단은 기존에 활동해 온 '52번 학교'에 더해 '34번 학교'를 신규 봉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봉사단원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태권도·K-팝댄스·과학수업 등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벽화 그리기·나무심기 등 노력 봉사도 병행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친환경 e-모빌리티 산단 조성

안강읍 갑산·근계리 일원에 조성 1805억 투입, 2028년 초 착공 4개 기업에 3.5만평 입주의향 받아

경주시는 안강읍 갑산·근계리 일원 24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1805억원을 투입해 RE100 안강 e-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2단계로 추진되며, 오는 7월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다. 경주시는 150MW 규모 풍력발전사업과 연계해 입주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0~20% 저렴한 전력을 20년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단계 사업부지에서는 사유지 144필지 중 78필지의 동의를 확보했고, 4개 기업으로부터 약 3만5000평 규모의 입주의향을 받았다. 입주기업에는 전기요금 할인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분양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산업단지를 통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e-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RE100 안강 e-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안강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경남도, 미서훈 독립운동가 36명 포상 신청

일제 경제적 수탈에 맞선 농·어민 제국주의 교육에 저항한 교사 포함

경남도가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36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2026년도 1차 포상 신청이다.

이번 신청 대상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선 농·어민 20명과 제국주의 교육에 저항한 공립학교 교사 5명이 포함됐다. 시간별로는 1918년 고성군 동해면 어민항쟁 관련자 17명, 1929년 의령군 낙동농민조합 사건 3명, 1933년 교육노동자협의회 사건 5명, 1919년 3·1운동 참여자 6명,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 관련자 5명이다.

고성 동해면 어민항쟁은 일본인 어업자들의 어장 독점과 노동 착취에 맞서 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항일 운동이다. 경남도는 당시 체포된 어민 가운데 박용수·조영욱·유삼두·오동업·박



1929년 중의일보의 의령군 부림농민조합 사건 신문 기사. /경남도

원오 선생 등 17명의 공적을 확인했다.

낙동농민조합 사건은 의령군 부림면 농민들이 낙동강 연안 농민 보호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상재·안맹제·안상록 선생이 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교육노동자협의회는 1933년 경남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이 제국주의 교육 반대와 민족교육 실현을 목표로 결성한 비밀결사 단체다.

/경남=송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0개사 선정

스트라드비전·디에스텍 등 지원

경북 포항시가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강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10개사는 우수 유망강소기업에 스트라드비전·디에스텍 2개사, 유망강소기업에 할렘·이프·캐럿펀트·국민기계·시민제과·다원화학 6개사, 예비 유망강소기업에 이류노바이옴·포스코어 2개사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요건 심사·현장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술 수준, 성장 전략, 연구 개발, 혁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AI 기반 자율 주행 비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스트라드비전은 2020년 유망강소기업 지정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오는 3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시의 유망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이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캐럿펀트·다원화학은 2023년 예비 유

망강소기업 선정 이후 각각 고고학·문화유산 분야 최초 CES 2025 혁신상과 K-BATTERY SHOW 2025 혁신상 소재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유망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선정 기업에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경영 환경 분석으로 비즈니스 스케일업 컨설팅 ▲PM(Project Manager) 제도와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R&D 역량 강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업 임원진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선정 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주도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성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

오늘 '제품 안내서' 발간 230여개 기업 정보 담아

충남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한데 모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안내서'를 발간했다.

도는 30일부터 안내서를 책자와 e-카탈로그 형태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 지역 내 기업 현황과 판매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2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명과 업종, 대표

자, 연락처를 비롯해 대표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사진, 가격 정보 등을 담았다.

구매기관이 분야별·유형별로 필요한 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초판에서 미흡했던 제품·서비스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해 원하는 품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책자는 이달 말부터 도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e-카탈로그는 다음 달부터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충남=양대성 기자 zzica@